

고흥군 '무한 친절 브랜드' 프로젝트 본격 시동

민원 등 4개분야·19개시책 발굴 "청렴·친절 브랜드 제고에 최선"

고흥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감동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행정 친절 브랜드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섰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민을 위한 능동·적극적 민원행정 서비스의 기준과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신속·공정·적법한 처리로 민원만족도 향상과 고흥군 친절브랜드 정착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4개 분야 19개 시책을 자체 발굴한다.

고흥군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더 낮은 자세의 '섬김'과 더 깊은 '배려'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불편을 초래하는 위험·부당한 요소를 선제 제거함으로써 친절을 고흥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민원담당 공직자의 역량 강화 △조상 땅 찾기 등 군민 재산·생활민원에 대한 능동적 서비스 지원 △군민에게 다가서는 적극 행정 서비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행정 노력 등이며 군은 올해 8억원을 투입해 포용적인 민원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 제공과 마음을 다스리는 힐링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해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을 기울인다.



고흥군이 군민을 위한 능동·적극적 민원행정 서비스 기준과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고흥군 제공

군은 소속 모든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민원응대 친절교육 아카데미를 연 2회 이상 추진하는 등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응대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행정 관청을 찾는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친절할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만족감을 드리고 민선 8기 군정 방향인 '청렴·친절 브랜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nilbo.com

보성군 '귀농·귀촌 동네작가' 모집

보성군은 오는 17일까지 보성군 '귀농·귀촌 동네작가' 12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귀농·귀촌 동네작가'는 SNS,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귀농·귀촌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식을 전달한다.

지원 자격은 글 작성과 사진, 영상 편집 등이 가능한 귀농인이라면 가능하며 개인 SNS를 운영 중인 자와 관련 전공 또는 직종 종사자 경력자를 우선 선발한다.

사전심사를 거쳐 동네 작가로 선정되면 귀농·귀촌 홍보 콘텐츠 제작 건당 5만원(월 한도 3건)씩 10개월 활동비가 지원된다.

제작 콘텐츠는 보성군 홈페이지, 귀농 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귀농 귀촌 사례집 등에 게재돼 귀농 귀촌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된다.

인구정책과 고흥사랑지원팀 (061-850-5991)과 읍·면 사무소로 문의 신청 접수하면 된다. 김은지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단 확대 장흥군, 다중이용시설 계도활동

장흥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단 인원을 작년 대비 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단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불법주차 신고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외 의료시설,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반신고 주요 유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선 침범.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반조 및 표지 부정사용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구형표지(사각형) 부착 차량,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최대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반조 및 표지 불법대여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장흥=김전환 기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여수시, 24일까지 접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임산부 및 자녀의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가 과일, 채소류, 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구입비 48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20%인 9만6000원만 부담하면 공급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4월부터 구입할 수 있다.

구입은 1회 3~10만원 내로 월 4회까지 가능하며 농산물은 공급지에서 각 가정에 택배로 발송해준다.

올해는 국비지원이 중단됐으나 시가 자체예산 2억원을 확보해 지역 내 전체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임신부 또는 대리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연세대 세브란스 의료진 무료 진료 여수시, 심장병 의심 소아 대상

여수시는 지난 11일 여수시보건소 진료실에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박한기 교수 등 의료진 등이 102차 심장병 무료진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료에는 의료진이 초음파 진단장비 등을 갖추고 심장병이 의심되는 소아 등 23명에게 진료를 진행했다.

무료진료는 짝수 달 둘째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선천성 소아심장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시민이라면 사전 전화예약 (061-659-3246) 후 진료 당일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11일 여수시보건소 진료실에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박한기 교수 등 의료진 등이 102차 심장병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여수시 제공

김성 장흥군수, 군민과의 대화 운영방향 공유·의견 수렴



장흥군은 김성 장흥군수가 지난 13일부터 부산면을 시작으로 군민과 대화에 나섰다라고 14일 밝혔다.

군민과 대화는 민선 8기에 설정한 군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3일 부산면복지회관에서 열린 첫날 행사는 김성한 전 기아타이어즈 야구감독이 참석해 고흥사랑기부제를 응원했다.

이어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장흥군은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 수렴된 의견은 담당 부서의 현장조사와 사업의 필요성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일정은 13일 부산면, 장동면을 시작으로 △14일 장평면 △15일 장흥읍 △16일 대덕읍, 용산면 △17일 안양면, 회진면 △20일 유치면, 관산읍 순서로 진행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군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따뜻한 장흥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보성군, 인공지능 활용 질병관리... 한우농가 돕는다

보성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체계적인 한우 질병관리에 나서 최근 한우값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돕는다.

보성군은 오는 3월10일까지 '2023년 소 질병 조기발견장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라고 14일 밝혔다.

선정 농가에는 신체정보탐지기 10대와 수신기 1대를 지원하며 구입비의 50%를 보존해 준다. 농가당 지원범위는 최대 234만5000원이다.

신청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축산

농가로 △암소 20마리 이상 사육 농가 △2년 이내에 소 설사병 질병 검사 의뢰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자연 종부가 의심되는 9개월 이상 수소 사육 농가 △가족사육업 또는 쇠고기이력제 미등록 농가 △농장 입구 차량 소독기 미설치 농가는 사업지원에서 제외된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소 질병 조기발견

장치 지원사업'은 202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오는 3월10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안내 글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500여 농가에 진료비 50%를 지원했으며 한우 사육농가의 질병 치료비 부담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고흥군, 마른김 검사소·수산물 저온유통시설 준공

고흥군은 14일 도양읍 일원에서 '고흥군수협 마른김 검사소 및 수산물 저온유통시설'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마른김 검사소 및 수산물 저온유통시설은 고흥김의 수출 증대와 글로벌 식품화를 위해 생산에서부터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인을 최소화해 안전하고 신선한 김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로, 광역거점형 마른김 품질검사·유통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고흥군은 고흥김산업 육성방안 차원에서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김 가공·유통을 위해 2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59억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812㎡ 규모의



고흥군수협 마른김 검사소 및 수산물 저온유통시설 준공식. 고흥군 제공

마른김 검사소와 1475㎡ 규모의 수산물 저온유통시설을 갖추게 됐다.

고흥에서 생산된 마른김의 품질검사와 자체 등급제 시행을 통해 고흥김의 수출 식품 세계화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과 같은 품질·위생·규격관리 등 수출식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어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고흥김의 수출역량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은지 기자